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22. 5. 10.(화) / 총 5매(본문2, 참고3)
담당 부서	공간정보진흥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대섭, 사무관 안종태 • ☎ (044) 201-3469, 3471
	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남형수, 사무관 김창우 • ☎ (031) 210-2606, 2720
	공간정보산업 진흥원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장 박종국, 선임 김지수 • ☎ (031) 606-2541, 2558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열린 국민의 공간 ‘청와대’ 지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

-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주변 일원의 지도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(브이월드*)에서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밝혔다.

* 3차원 공간정보(지도) 대국민 오픈 플랫폼(<https://map.vworld.kr>)

- 지금까지 청와대는 보안지역으로 분류되어 인근 지역에 대한 지형, 지물 등의 공간정보 공개가 제한되었으나,
- 새 정부에서 국민 모두의 ‘열린 공간’으로 청와대를 개방함에 따라, 이 일대를 지도로 구축하여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.
- 이번 청와대 지도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항공영상, 1:1,000 축척의 전자지도 등으로 공개·제공하고,
-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에도 제공하여 인터넷지도, 내비게이션 사용에 있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청와대를 편리하게 온라인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”면서,
 - “향후 2차원 항공영상 뿐만 아니라, 3차원 입체모형, 실내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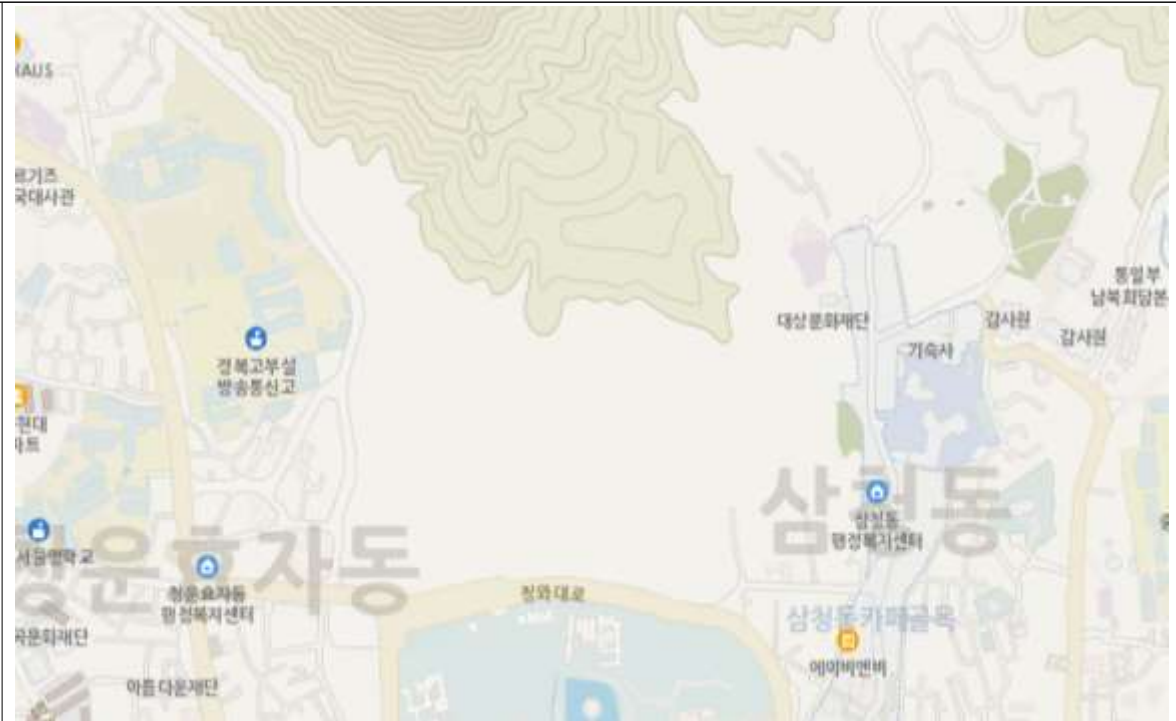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 정보진흥과 안종태 사무관(☎ 044-201-3471),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김창우 사무관(☎ 031-210-272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청와대 일대 지도서비스 공개 전 · 후 비교

인터넷지도

공개
전



공개
후



□ 정사영상

공개
전



공개
후



